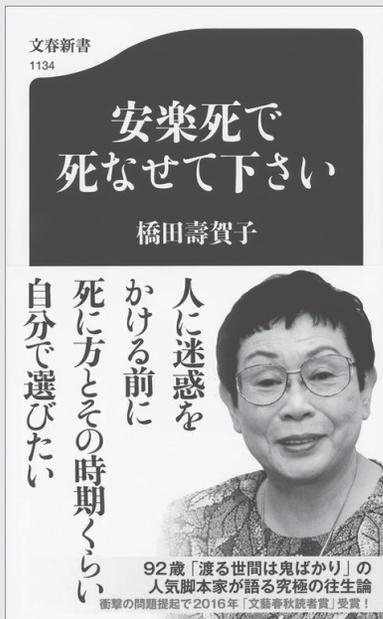


2/ 일본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풍경*

안지나



하시다 스가코, 『안락사로 죽게 해 주세요』, 문예춘추, 2017

출처: 文藝春秋BOOKS(<https://books.bunshun.jp/ud/book/num/9784166611348>).

안지나(安志那) 오키나와국제대학 일본문화학과 준교수. 도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근대 만주이민문학에서 출발하여 역사와 기억의 문제, 사회와 문학의 영향관계를 주제로 연구했다. 저서로 『帝国の文学とイデオロギー：満洲移民の国策文学』(世織書房, 2016), 『만주이민의 국책문학과 이데올로기』(소명출판, 2018), 『어느 날 로맨스 판타지를 읽기 시작했다』(이음, 2021)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시노다 세츠코의 『장녀들』(이음, 2020), 대륙개척문예간화회의 『개척지대』(소명출판, 2022)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 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3.28.62>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의 노년문학이 그리는 문제적인 죽음의 두 표상, 즉 개호살인(介護殺人)과 안락사 문제를 사에 슈이치(佐江衆一)의 『노숙가족』(老熟家族, 1985)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시점으로 일본 총인구 1억 2,550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621만 명으로 고령인구비율은 28.9%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65년에는 약 2.6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약 3.9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맞물려 향후 일본 사회에서 생산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일본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해 온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실제로 2019년 일본 금융청이 앞으로 일본인은 노후에 연금만이 아니라 2,000만 엔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한 소위 ‘2,000만 엔 문제’는 각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짊어진 젊은 세대에게 생활 보호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가 유행하고, 나이가 강화되는 움직임 보이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사회에서 본래 조직에서 고령의 권력자가 실권을 쥐고 세대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노해’(老害)라는 말은 이제 거친 행동으로 젊은이에게 폐를 끼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노인을 가리키는 멸칭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을 향한 불안감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랫동안 일본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일본 사회 전반에서 노년인구를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고령자 스스로가 이를 내재화시켜 왔다. 아마노 마사코(天野正子)는 이러한 노년관이 이미 근대화 과정에서 배태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노인은 “타자의 시선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값이 매겨지는

지 민감하게 느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와 대면¹⁾해야 했기 때문이다. 근대부터 청년이나 장년 중심의 시각과 시간각각이 보편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늙음’ 자체가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생의 절정을 성장하고 욕망하는 청년기와 사회의 중견으로서 활약하는 장년까지로 인식할 때, 늙음과 죽음은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1980년대부터 유행한 ‘핑퐁코로리’(ピンポンコロリ, ppk)라는 조어는 이러한 노년관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정정(핑핑)하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쓰러지는(코로리) 것이 이상(理想)이라는 뜻의 이 말은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에게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하는 말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정하고 건강한 노인이 맞이하는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곧 돌연사를 의미한다. 노인이 돌연사를 이상으로 삼는 사회를 이상적인 장수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면에는 고도경제성장기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고령자 ‘개호’(介護, 돌봄)문제가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재편된 일본 사회에서는 노년의 돌봄문제가 빠르게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는 현대의학의 발전, 건강보험 및 연금 제도의 정비로 인해 노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하여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혈연집단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핵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3년에는 노인의료비지급제도의 창설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가 무상화되었지만, 같은 해 일어난 오일쇼크 때문에 고령자 의료비 무상화는 ‘퍼주기 복지’(バラマキ福祉)라는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82년 노인보건법 제정으로 고령자 의료비 무상화는 끝나게 되었다. 기와키 나치코(木脇奈智子)와 아라이 야스토모(新井康友)는 1979년 ‘신경제사회 7개년계획’에서 제창된 일본형 복지사회론은 고령자 개호에 관하여 ‘동거 가족’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특히 컸다고 지적하였다.²⁾ 예를 들어 『후생백

1 天野正子, 『老いへのまなざし: 日本近代は何を見失ったか』, 平凡社, 2006, 59쪽.
 2 木脇奈智子·新井康友, 「日本における家族パラダイムの変容と高齢者の孤立」, 『藤女子大学人間生活学部紀要』 52, 2015, 68쪽.

서』(厚生白書, 1978)에서는 일본은 부부 중심의 서양과 달리 부모와 자식 세대가 동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삼세대 주택은 가정 기능에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세대 간 부조’(扶助)의 이점은 바로 “부모가 아직 건강한 동안(예를 들어 50~65세)에는 자식 부부에게 출산, 육아에 도움이나 원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는 집보기나 아이 돌봄의 일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부모가 점차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기간(예를 들어 70세 이상)에는 자식 세대에 의한 부모 간호를 기대할 수 있다”³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바로 일본의 복지정책에서 종종 가족이 ‘내재적인 자산’(含み資産)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의 1970, 8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복지 기능을 일부 담당할 수 있는 가족이란 결국 가정 내 여성, 특히 전업주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후생백서』에서 세대 간 부조에 기대하는 순기능이란 출산, 육아, (식사)조리, 간호이며 이는 근대가족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에게 삼세대 동거가 가지는 장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형 복지사회론에서 고령자 간호는 일차적으로 가족, 그중에서도 전업주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재택간호(在宅介護)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재택간호는 경제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정서적·육체적인 돌봄노동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핑핑코로리’가 고령자의 건강과 자립적인 삶의 구축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재택간호에서 비롯되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후생백서』에서 상정하고 있는 세대 간 부조에서 부모는 출산, 육아에 도움을 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노인이라는 점이다. 질병 혹은 노쇠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자리보전하는 노인(寝たきり高齢者)이나 치매 노인을 향한 관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당시 치매 노인 재택간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냄으로써 당

3 厚生労働省, 「総論 第3章 健康な老後を考える 第2節 高齢者社会の課題 1 家庭の動向と課題 (2)子どもとの同居・別居の動向」, 『厚生白書(昭和53年版)』, 1978.

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베스트셀러 『황홀한 사람』(恍惚の人, 1972)이 묘사한 현실이기도 했다. 다치바나 아키코(立花昭子)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시부(媿父)를 맡길 시설이나 제도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노인복지지도주사(老人福祉指導主事)에게서 “주부 분들이 야무지게 해 주시는 것 이상의 방도는 없습니다.”⁴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가정 외부의 도움을 향한 기대를 포기한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재택개호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기로 결심한다.

1982년 노인보건법의 제정에서 2000년 개호보험까지, 일본 사회에서 개호가 점차 사회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그 중심은 재택개호였다. 재택개호로 핵가족에게 가중된 부담은 개호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 사회의 개호살인만을 집계한 공식기록은 없으나, 고령자학대방지법(2006)이 성립하면서 매년 고령자학대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나카 다케시(田中武士)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고령자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0명이었다. 피해자는 80세 이상 85세의 고령자 여성이며, 가해자는 남성이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관계는 아들-부모, 남편-아내, 딸-부모, 아내-남편의 순이었다.⁵ 이와 같은 일본 사회의 개호살인은 주로 각 신문의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재택개호와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다루어졌다.

한편 개호를 주요 소재로 삼는 일본의 개호소설에서는 개호살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는 작가 본인이 개호자로서 개호 경험을 고백하는 사소설(私小説)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사에 슈이치의 『노숙가족』(1985)은 바로 이 개호살인과 안락사를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인 작품이다. 사에 슈이치는 초로의 부부가 노부모를 개호하는 노노개호(老老介護)의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해 큰 화제를 모은 개호소설 『황락』(黄落, 1995)이 유명하다. 이에 비하여 『노숙

4 有吉佐和子, 『恍惚の人』, 新潮社, 1972, 227쪽.

5 田中武士, 「介護殺人の社会的性格と社会的背景」, 『佛敎大学大学院紀要社会福祉学科篇』 50, 2022, 54쪽.

가족』은 『황락』만큼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는 미스테리의 수법으로 개호살인을 묘사하는 소설의 내러티브가 친밀해야 할 가족 사이에 숨어있는 적개심과 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후생백서』가 이상적이라고 본 삼세대 동거 가족에서, 그리고 ‘핑핑코로리’가 상징하는 건강한 고령자에게도 개호살인이 일어나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제기한다. 특히 치매를 앓는 고령자의 안락사라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정미는 『노숙가족』이 일상적인 개호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주제는 점차 “형이상학적인 존엄사의 문제로 미끄러져” 간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개호의 사회화라는 문제제기 면에서는 소설이 어중간한 형태로 끝나 버렸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노숙가족』은 단순히 1980년대 일본 사회의 재택개호 문제나 개호살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사자와 당사자를 개호하는 가족을 둘러싼 안락사 문제의 복잡한 모순과 균열을 다루는 독특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히려 안락사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더욱 많은 시사점을 갖는 작품으로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죽음

『노숙가족』은 조부모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남매가 동거하는 요코하마(横浜)의 한적한 뉴타운에서 일어난 개호살인사건에서 시작한다. 피해자는 83세 모리모토 다쓰(森本タツ)이다. 가해자로 체포된 것은 남편인 87세 료사쿠(亮作)였다. 한적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미디어의 관심이 모이고,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이웃은 모리모토 가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6 崔正美, 「佐江衆一の描く「介護殺人」小説: 『老熟家族』について」, 米村みゆき, 佐々木亜紀子 編, 『〈介護小説〉の風景: 高齢社会と文学 増補版』, 森話社, 2015, 246쪽.

다. “부러운 가족이었죠. 돌아가신 할머니는 자리보전하고 누워만 계시는 모양이라 요즘에는 통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나이인데도 건강한 분이라 할머니 간병을 전담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사이가 좋은 노부부라 할머니가 건강하셨을 때는, 그때도 연세가 있으셔서 눈이 꽤 불편하시고 할아버지도 귀가 불편하셨지만, 두 분이서 이인삼각(二人三脚)처럼 서로 도와가며 지팡이를 짚고 사이 좋게 산보도 하셨답니다. 며느리 분도 훌륭한 분이라 두 분을 잘 돌봐주셨고요. 남의 집안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동거하면서도 시부모와 다투지도 않는 모양이었구요. 우리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갑자기 노망이 난 바람에 입원시키고 겨우 한시름 놓았지만, 역시 서로 아웅다웅하더라도 모리모토 씨 댁처럼 같이 사는 게 노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거죠. 모리모토 씨 댁은 노부부가 별채에서 지내셨는데, 뭐더라, 왜 그런 말 있죠, 노인과의 동거는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가 이상적이라고. 요전에도 슈퍼에 가는 모리모토 씨 할아버지와 길에서 마주쳤는데, ‘아들 집에서 장수하고 죽을 수 있으니 우리는 행운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할머니를 죽였다니…. 그것도 목을 졸랐다면서요? … 왜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노, 믿고 싶지 않아요.” 이 인터뷰는 그대로 소설의 주제를 드러낸다. 한적한 주택가의, 그것도 이웃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삼세대 중산층 가정에서 왜 참혹한 개호살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어서 가나가와(神奈川) 신문에 사건 보도 기사가 실린다. 회사원인 아들 요시오(代志男)가, 아버지가 별채에 쓰러져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죽음의 경위에 의구심을 품은 경찰이 사법해부를 하는 동안 아들 부부는 아버지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했는데, 그들은 “료사쿠가 자기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리자”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심문을 받은 료사쿠는 아내가 발버둥치는 것을 누르다가 손으로

7 佐江衆一, 『老熟家族』, 新潮社, 1996, 6~7쪽.

8 佐江衆一, 『老熟家族』, 8쪽.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료사쿠의 자백에 따라 개호 피로 등으로 발작적인 충동을 느끼고 아내를 액살(縊殺, 손으로 목을 눌러 죽임)했다고 판단한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료사쿠가 87세의 고령에 귀가 불편한 데다가 치매가 심하여 경찰에게 “죽고 싶다. 죽고 싶어.”라고 반복했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 형사인 다시로(田代)는 사망한 피해자의 표정이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 죽음이 료사쿠의 자발적인 범행이거나 피해자에게 부탁받은 촉탁살인이 아닌가 의심한다. 하지만 경찰의 의심은 정의나 공정,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없는 현실의 모순을 무난하게 봉합할 수 있는 미봉책을 찾기에 급급할 뿐이다. 실제로 다시로는 아들 부부가 할머니의 시체를 발견하고도 즉시 구급차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곤도(近藤) 의사를 부른 점에 주목한다. 그는 아들 부부가 다쓰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무마하려고 경찰이나 구급차가 아니라 평소 가족을 돌봐주던 의사를 일부러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본인도 72세의 고령인 곤도가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로는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사인이 애매한 노인의 죽음을 암묵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돌아가고, 며느리인 리쓰코(律子)의 의견에 따라 아들이 경찰에 연락함으로써 사건이 되었다.

상사인 미우라(三浦) 과장은 “자백하기도 했고 노인 상대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고, 잘 좀 부탁하네. 아까 자살 가능성을 얘기한 건, 자살이면 우리 어깨 짐도 가벼워진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니까. 다시로 씨가 투덜땀듯이 이런 사건은 골치가 아파.”⁹라며 사건을 적당히 마무리 지을 것을 노골적으로 권한다.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로 사건이 널리 알려진 탓에 많은 시민들이 경찰서로 항의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항의란 ‘87세 노인의 체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늙은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

9 佐江衆一, 『老熟家族』, 34쪽.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말하자면 『노숙가족』에서 다쓰의 죽음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결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다. 가족, 주치의, 경찰, 시민들까지도 다쓰의 죽음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지도,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한, 본인도 충격을 받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87세 노인을 동정한다. 오직 다쓰의 죽음이 남긴 행정 절차나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다쓰의 평온한 마지막 표정은 심지어 본인조차도 자신의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기꺼이 동의하는 듯이 보인다. 『노숙가족』은 자리보전하고 누워 있던 치매 노인의 허망한 죽음을 생물학적인 죽음임과 동시에 이미 오래전에 맞이한 사회적인 죽음을 재확인하는 사후 처리 과정으로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상기할 점이 있다. 저자인 사에 슈이치가 이 소설의 주제를 “노인의 존엄사”¹⁰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3. 신종교와 안락사의 표상

사에 슈이치는 자신의 에세이 『늙는 법 탐구』(老い方の探求, 1996)에서, 1985년 『노숙가족』을 집필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일본 각지의 관련 시설을 취재했다고 썼다. 그는 당사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일본의 노인 케어 시스템이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했다. 『노숙가족』에서 약 10년 뒤에 발표한 『황락』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치매를 위장하여 단식으로 ‘존엄사’를 맞는다는 결말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황락』의 ‘존엄사’는 오히려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모정에서 비롯된 희생정신의 발로이며, 초로의 아들 부부는 자신들도 그 뜻을 본

10 佐江衆一, 『老い方の探求』, 新潮社, 1996, 25쪽.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본에서 ‘존엄사’는 일반적으로 ‘연명치료의 거부 및 중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에 슈이치가 사용하고 있는 ‘존엄사’는 말 그대로 ‘개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받으리라 다짐한다. 이에 비하여 『노숙가족』의 ‘존엄사’는 경찰 수사와 진술을 통해 살인의 동기와 배경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소설의 형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보다 냉정하게 다쓰의 죽음을 탐색한다.

다시로 형사는 모리모토 가족의 진술을 통해 이 “부러운 가족”들이 모두 내심 노부부가 죽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부모의 죽음을 바라는 것은 반드시 개호가 힘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들 요시오는 어머니가 눈이 불편해도 취미를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아버지는 자치회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대나무 공예를 가르치기도 하고 노인회에서도 활약하며 지역 신사와 도로 청소 봉사료 표창을 받았던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이제 할멈과 함께 덜컥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할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수하셔야죠.”

아내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지만 아마 아내도 마음속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행복할 때 돌아가 주시기를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아버지가 지역 청소 봉사료 시장에게 표창장을 받았을 때, 그 행복 속에서 우리가 성가시지 않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편할까, 분명 부모님의 죽음을 바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85세, 어머니는 81세였습니다.¹¹

요시오의 관조적인 진술은 부모의 개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방관자였면서도 처음부터 부모의 존재 자체를 성가시게 여기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직접 봉양한 며느리 리쓰코의 진술은 그녀가 주도적으로 개호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요시오와 달리 시부모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 준다. 시모가 먼저 치매에 걸리자 리쓰코는 의사에게 상담하여 치매의 진행을 막기 위해 시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고, 시부에게도 장을 보러 가거나 노인회의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도록 권함으로써 되도록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

11 佐江衆一, 『老熟家族』, 43~44쪽.

한다. 치매에 걸린 시모가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양호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비해, 옛날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부는 며느리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한다. 나아가 그녀는 시부가 ‘자신은 늙어 고독하고 쓸쓸하다.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어.’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던 실종 사건을 이야기한다. 료사쿠는 고향 절에 있는 선조의 묘석 옆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반야심경을 읊으며 흙을 자기 몸에 끼얹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다.¹²

흥미로운 점은 이 료사쿠의 실종 소동이 ‘고향 절에 있는 선조의 묘석 옆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 반야심경을 읊으며 흙을 자기 몸에 끼얹고 있’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강렬한 죽음을 향한 충동을 증명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의 투정이나 치기로 간주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요시오와 달리 주개호자인 리쓰코의 시선에 따라 피개호자를 평가하고 그 행동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늙고 병들어 불안정하고 어리석으며 감정적으로 묘사되는 피개호자보다 의도가 명확하고 일관되며 이성적으로 보이는 리쓰코의 시선은 일견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리쓰코의 담담한 진술은 예전부터 늙은 시부가 죽음을 원했음을, 하지만 그것은 치매에 걸려 불안정한 노인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상 행동에 불과함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는 것이다.

리쓰코는 그 근거로 겐보기와 달리 시부모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음을 설명한다. 시부는 평생 여자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아내가 출산할 때조차 술을 마시느라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 부부는 할머니가 눈이 불편한 것이나 치매 증상이 오랫동안 자신을 고생시킨 남편에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여 괴롭게 하려는 복수라고 해석한다. 시부 역시 아들 부부의 말은 잘 알아들으면서 아내의 목소리에만 귀가 잘 안 들리는 척을 함으로써 아내의 복수에 은밀히 대항했다. 결국 아들 부부의 진술은 이웃이 말하는 “부러운 가족”의 실체가 서로를 혐오하고 거북해하면서도 체면을 지켜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12 佐江衆一, 『老熟家族』, 54쪽.

실제로 아들은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개호 부담을 방관하면서 내심 부모가 죽기를 바라고, 며느리는 개호를 전담하는 입장에서 남편의 외도를 깨닫고 분개하면서 시모의 개호에 자신을 희생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 다시로 형사는 아들 부부가 이미 예전부터 시모의 죽음을 원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것이 곧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모리모토 가족에게 접근한 W·W·C(Welcome Wagon Company)라는 신종교(新宗教)의 영향에 주목한다. 노부부가 가입한 W·W·C는 신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장려하는 신종교다.

『노숙가족』에서 묘사된 바에 따르면, 이 종교는 환경오염과 핵전쟁, 가족붕괴로 인한 고독한 노인의 증가가 아마겟돈이 가까워진 말세의 증거라고 보았다. 따라서 악마에게 파괴될 지상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노인은 W·W·C에 가입함으로써 “불안에서 해방되어 무의미한 의료로 고뇌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나날 속에서 주님에게 불러 갈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인간다운 엄숙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 우리들, 주님의 사랑이라는 빵을 나누는 동지(company)”야말로 “진정한 부모자식, 형제, 자매인 ‘가족’이 된다”고 주장한다.¹³

종말론과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W·W·C의 교리는 기독교 계열의 신종교로 보인다. 현재의 독자에게 노인의 안락사를 주장하는 신종교의 존재는 매우 수상쩍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신종교의 반사회성이 크게 주목을 받는 계기는 사카모토 쓰쓰미(坂本堤) 변호사 살인사건(1989년)부터 지하철 사린 사건(1995년)과 마쓰모토(松本) 사린 사건을 포함하는 ‘오옴진리교사건’이다. 1985년에 출판된 『노숙가족』에서 다시로를 제외한 등장인물은 W·W·C를 향해 “사회문제화된 종교”¹⁴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다시로가 의심하는 것은 아들 부부가 바로 부모의 안락사를 바랐기 때

13 佐江衆一, 『老熟家族』, 98쪽.

14 櫻井義秀, 『「カルト」を問い直す: 信教の自由というリスク』, 中央新書ラクレ, 2006, 77쪽.

문에 W·W·C 가입을 허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저 W·W·C라는 단체는 말하자면 신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장려하는 단체였던 것 같아. 료사쿠와 다쓰 씨가 들어가 있던 ‘마중 마차’의 내용을 요시오 부부가 잘 몰랐다는 건 이상하지 않”¹⁵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후 『노숙가족』에서는 아들 부부의 독백을 통해 W·W·C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단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리쓰코는 “장례는 모두 단체의 방식을 따를 것. 그 외에 인간으로서의 엄숙한 죽음은 신이 정해 주신다.”¹⁶라는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남편에게도 전한다. 하지만 요시오의 반응은 부모님이 “스스로 편히 죽어 주시면, 이쪽도 다행이지.”라고 대꾸할 뿐이다. 결국 아들 부부가 바라 것은 신종교에 가입한 부모가 자신들과 무관하게 자진해서 안락사를 실행하여 자신들을 개호의 부담에서 해방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의도와 달리, 안락사를 장려하는 신종교는 노부부만이 아니라 그들 부부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직접 시모의 개호를 하던 리쓰코는 죽고 싶다는 시모의 감정에 동화된 나머지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열망하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피개호자로서 생활을 통제당하는 불만과 불평에서 막연히 죽음을 원하던 료사쿠나 삼세대 동거와 개호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은밀하게 노부부의 죽음을 바라던 아들 부부는 W·W·C 입회를 계기로 ‘안락사’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리모토 가족의 살인 사건에 W·W·C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그 상세한 교리, 전도 내용, 인간관계는 텅 빈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W·W·C의 애매한 묘사는 『노숙가족』이 미스터리 소설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일본 사회에서 한적한 주택가에 거주하며 자식에게 봉양을 받는 중산층 노부부가 ‘안락사’의 구체적인 개념을 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고도경제성장기에서 버블경제기로 이행하고 있던 1980년대

15 佐江衆一, 『老熟家族』, 116쪽.

16 佐江衆一, 『老熟家族』, 162쪽.

일본 사회는 아직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공공연하게 고령자의 안락사를 내걸고 활동하는 신종교의 존재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W·W·C라는 수상한 신종교가 등장함으로써, 노부부가 ‘안락사’를 열망하게 되며 아들 부부조차도 영향을 받는다는 설정은 자연스럽게 다쓰의 죽음을 ‘안락사’의 맥락으로 재배치한다. 다시로와 독자 역시 W·W·C의 존재 때문에 모리모토 가족의 ‘안락사’를 향한 광기 어린 집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W·W·C는 안락사를 부정하는 기존 종교의 대항적인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소설적 장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W·W·C의 소개 문구에는 “무의미한 의료로 고뇌를 연장”, “인간다운 엄숙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한”과 같은 안락사의 추상적인 개념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4. 안락사의 맥락

일본문학에서 안락사를 소재로 한 최초의 문학작품은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다카세부네」(高瀬舟, 1916)이다. 이 소설은 에도(江戸) 시대를 배경으로 유배지인 외딴 섬으로 호송되는 죄수가 병에 고통받던 동생의 자살을 도왔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듣는 내용이다. 의사였던 오가이는 개인사에서 백일해를 앓던 자신의 딸에게 모르핀을 주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을 통해 안락사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독일어 ‘Euthanasia’의 번역어로 안락사(安樂死)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194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였다. 이후 1950년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 열린 촉탁살인사건 재판에서 변호사가 변론에서 ‘안락사’를 사용하면서 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¹⁷ 일본에서 안락사 논의는 주로 현대의학의 생명윤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17 関口正和, 「文学に現れた安樂死」, 『流通経済論集』9(4), 1975, 49쪽.

안락사는 ① 적극적 안락사, ② 의사방조자살, ③ 연명치료의 중지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근이완제 등 치사약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가리킨다. 의사방조자살은 의사가 환자에게 강한 수면제나 진정제 등 치사약을 처방하여 환자가 원할 때 이를 복용하여 자살하는 경우다. 연명치료의 중지는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행하지 않거나 중지하고 대증요법만을 행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다.¹⁸

1962년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는 촉탁살인사건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병자가 현대의학 지식과 기술에서 볼 때 불치병에 걸린 상태이고 그 죽음이 목전까지 닥쳐 있을 것, ② 병자의 고통이 극심하여 누구나 이를 보기에 참기 어려울 정도일 것, ③ 병자의 고통 완화가 목적일 것, ④ 병자의 의식이 명료하며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이 있을 것, ⑤ 의사의 손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사가 어쩔 수 없다고 수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 조건에서 본다면 「다카세부네」의 주인공은 ③과 ④의 조건만을 만족시키므로 이 당시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촉탁살인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노숙가족』의 경우 만성질환인 치매나 노환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매 때문에 ④를 만족시킬 수 없고, 액살이라는 살인 방식으로 볼 때 ⑤와 ⑥도 만족되지 않는다. 당시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다쓰의 죽음은 촉탁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카세부네」와 『노숙가족』의 죽음은 자비살인(慈悲殺, mercy killing)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 적극적 안락사에 포함되기도 하는 자비살인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가 자비심이나 동정심으로 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다. 그러나 본인의 명시적 의사표현 없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비살인은 안락사가 아닌 살인행위

18 安藤泰至, 『安樂死・尊嚴死を語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こと』, 岩波書店, 2019, 16쪽.

라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1962년 이후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연명치료의 거부 혹은 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5년 미국에서 일어난 카렌 퀸란 사건이 일본에 보도되면서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는 말은 ‘연명치료의 중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976년에 설립된 일본안락사협회는 적극적 안락사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일본 사회의 강한 반대와 반발에 부딪히자 1983년에는 일본존엄사협회로 개칭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명치료의 거부’라는 의미로서의 존엄사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존엄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연명치료의 거부’,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하는 이 단체의 용법은 이후 일본 매스컴을 통해 일본 사회에 퍼져 나갔다.¹⁹

이러한 일본 사회의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맥락에서 볼 때, 『노숙가족』에 등장하는 안락사 혹은 존엄사의 개념은 엄밀하다고 보기 어렵다. W·W·C의 “무의미한 의료로 고뇌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연명치료 거부로서의 안락사, “인간다운 엄숙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은 적극적 안락사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료사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안락사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미국에서는 암환자 등에게 안락사를 시키는 호스피스라는 시설이 있는 모양인데, 일본에 우리처럼 죽음을 원하는 노친네를 편하게 해 주는 시설은 없는 것인가./ 학식이 있으면 내 마음을 어딘가에 쓰고 싶지만 이 머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본에서 안락사가 허용되는지 아닌지 대학의 높으신 선생에게 물어보고 싶다.”²⁰ 실종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죽음을 원하지만, 그 감정이나 충동을 안락사와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숙가족』에서 이야기하는 안락사 및 존엄사의 개념은 동시대에 진행되고 있던 생명윤리 혹은 법제화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죽음을 원하

19 安藤泰至, 『安楽死・尊嚴死を語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こと』, 28~30쪽.

20 佐江衆一, 『老熟家族』, 182~183쪽.

는 고령자를 위한 안락한 죽음, 혹은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죽음 등 단어의 뜻을 말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치매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적고, 환자의 인지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법제상 결코 적극적 안락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료사쿠는 다쓰가 치매에 걸린 2년 전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며 아내를 죽인 뒤 자신도 자살할 방법을 찾는다. 1982년 아메리카에서 인공투석을 받던 14세 소년의 안락사 기사, 미국의 안락사 및 존엄사 재판의 보도 기사, 일본의 고령자 자살 및 살인기사, 그리고 2년 전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에서 86세의 노인이 뇌연화증을 앓고 있던 77세의 아내를 넥타이로 교살한 사건이다. 특히 마지막 사건 기사에서 요코하마 고등재판소 판사는 가해자에게 동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간호에 진력을 다한” 피고를 “부부애의 실천자”라 평하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했다.²¹

이 스크랩은 료사쿠가 동시대의 안락사 및 존엄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해도, 당시 일본에서 법적으로 안락사 및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고령의 가해자는 관례적으로 엄벌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즉, 『노숙가족』은 일본 사회가 자비살인이나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면서도 그것이 개호살인이라는 형태로 실행되었을 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료사쿠와 같은 고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1 佐江衆一, 『老熟家族』, 189~190쪽.

5. ‘노숙가족’의 살인

이처럼 『노숙가족』의 서사는 다쓰의 죽음을 소재로 수사와 진술, 증거를 통해 “부러운 가족”인 모리모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다쓰와 료사쿠의 죽음을 바랐음을 보여 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시오는 처음부터 부모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겼고, 리쓰코는 시부모의 개호를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상황은 다쓰가 치매에 걸리고 리쓰코에게 개호 부담이 가중되자 한층 악화된다. 요시오는 아내를 향한 죄책감과 부담감에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의 불륜을 눈치챈 리쓰코의 분노와 증오는 구체적인 개호 행위를 통해 무력한 피개호자를 향한 살의로 전환된다.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오물 투성이인 몸을 주름 구석구석 문지르고 있을 때, 욕을 먹으며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목욕시킬 때, 내 손은 증오로 굳어지고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떨리며, 당장이라고 할머니 목을 조르고 싶었다. 죽여 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 내 눈앞에 개호하는 내 손에 매달려 늙고 추한 쪼그라든 고깃덩어리가 된 시모가 꿈틀거리며 제멋대로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 막이 있는 작은 눈을 교활하게 빛내며 심술궂게 나를 찌르며 당연한 듯이 어리광을 부리고, 죽여버리고 싶어!”²² 남편의 불륜은 단순히 부부 간의 배신일 뿐만 아니라 며느리인 리쓰코가 시모를 힘들여 개호할 이유와 동기를 상실하게 만든다. 리쓰코는 개호자와 피개호자가 직접적인 피부접촉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개호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살의를 생생하게 자각한다.

하지만 이후 다쓰의 치매가 더욱 악화되고,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묘사되지 않지만 W·W·C의 영향이 리쓰코에게까지 미치자 상황은 역전된다. 요시오는 리쓰코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그녀 손으로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함으로써 살인을 유도하고자 한다. 실제로 리쓰코는 시모가 입원한 병원에서 심각한 상태의 다른 환자들을 목격하고 “이윽고

22 佐江衆一, 『老熟家族』, 149~150쪽.

할머니처럼 될 여자인 내가 간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돌보자. 내 손으로 죽게 해 주자.”라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리쓰코는 구체적인 개호 행위를 통해 ‘죽음을 원하는’ 다쓰에게 동화된 다. “할머니 개호를 전혀 괴롭다고도 싫다고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부패한 달걀 속처럼 할머니와 동화해 버렸다. 살갗에 닿으면 할머니의 죽고 싶다는 소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물투성이 기저귀를 갈 때, 탄력을 잃은 피골이 상접한 몸을 구석구석 닦아 드릴 때, 내 이 손에 며느리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은 힘이 더해지면 좋으리라. 그러면 편하게 해 줄 수 있다. 매일 그 힘이 더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²³ 그녀는 개호를 통해 다쓰의 늙고 초라해진 신체에서 자신의 미래를 목격하고,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되는 그녀의 비참함에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말하자면 리쓰코의 살인은 개호살인에서 자비살인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시오는 점점 더 시부모의 개호에 몰입하는 아내를 “다정한 흥기”로 만들어 부모가 “아내의 헌신적인 개호 속에서 행복하게 죽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²⁴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고 부모가 자진해서 안락사를 하든가 아내가 해 주기를 꿈꾸는 아들의 비겁한 공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쓰다. “이런 걸 부탁할 수 있는 건 피를 나눈 아들뿐”이기 때문이다. 『노숙가족』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안락사는 의료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자신의 진짜 ‘가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실행해 주지 않자 그녀는 남편 료사쿠에게 살인의 실행을 부탁한다. 이는 『노숙가족』이 이야기하는 안락사란 수상한 신종교가 이야기하는 낯선 신의 사랑이 아니라 일본 가족주의의 내부에 존재함을 드러낸다. 실제로 료사쿠가 이야기하는 죽음의 논리 역시 추상성을 걷어 내면 남는 것은 “더구나 노망이 나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되어서는 가족에게 폐를 끼칠 뿐이다.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에 폐를 끼친다”²⁵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본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23 佐江衆一, 『老熟家族』, 163쪽.

24 佐江衆一, 『老熟家族』, 170쪽.

25 佐江衆一, 『老熟家族』, 182쪽.

가족에게 개호받는 재택개호야말로 고령자들에게 이상적인 개호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노숙가족』은 바로 재택개호가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에서 기인한 육체적·경제적 개호 부담이 “가족에게 폐를 끼칠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때 안락사는 철저하게 가족의 문제가 된다. 고령자는 가족의 개호 부담에 스스로 가족에게 살인을 부탁하고, 아들과 며느리 중 누군가는 괴로워하는 가족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 살인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숙가족』이 묘사하는 다쓰의 죽음은 안락사, 자비살인, 개호살인의 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두 어긋나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의 동의 혹은 승낙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락사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당사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 즉 명시적인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노숙가족』에서 다쓰의 의사는 물론이고 그 구체적인 감정이나 심리조차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다. 요시오와 리쓰코는 진술과 독백을 통해서, 료사쿠는 일기와 스크랩북을 통해서 그 심리가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정작 다쓰는 다른 가족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해서만 묘사될 뿐이다.

실제로 『노숙가족』에서 다쓰의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남편 료사쿠와 아들 요시오, 그리고 며느리 리쓰코이다. 이들 중 아무도 다쓰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다쓰의 죽음을 가장 바란 사람은 다쓰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 다쓰가 치매 환자이며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녀가 일관되게 죽음을 원한다고 굳게 믿는다.

부탁이니까 네 손으로 날 편안하게 해 주렴... 떨리는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목을 꺾었다. ... 이런 걸 부탁할 수 있는 건 피를 나눈 아들뿐이야. 부모가 이런 걸 자식에게 부탁하면 조상님이 ‘자식불효’라고 혼내시겠지만, 나 같은 노망난 할망구가 벌이는 것이니 조상님도 용서하실 거란다. 이 이상 노망이 나기

전에 죽고 싶으니, 하느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부모가 부탁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불효가 아니란다.

...

그건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니라, 제정신인 어머니가 부탁한 것이다. 노망으로 인한 헛소리도 잠꼬대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어머니를 죽일 흥기가 되어야 했다!²⁶

이 치매를 앓는 고령자의 살인 의뢰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니라, 제정신인 어머니”의 “부탁”이라는 아들의 믿음은, 매일 열심히 체조를 하던 어머니가 “몸을 단련해서 병에 안 걸리고 덜컥 죽고 싶”²⁷다고 했던 기억에 의해 뒷받침된다. 하지만 “제정신인 어머니”가 정작 자신의 부탁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은 간과된다.

이와 대조적인 것은 아들의 범행을 목격한 료사쿠가 의연하게 자신이 범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스크랩북과 일기를 통해 그가 집요하게 자살 방법을 수집하고 재판 기록을 통해 고령자의 개호살인에 일본 법원과 사회가 충분히 동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으므로, 그의 대담한 판단과 행동은 충분한 개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묘사를 고려한다면, 모리모토 가족이 다쓰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안락사’의 소망을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료사쿠, 요시오, 리쓰코 모두 다쓰의 비참한 모습, 특히 자신의 생리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며 개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에 강한 경멸과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상상은 자신 역시 다쓰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다.

현재 치매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의학은 아직도 완벽하게 치매 환자가 보는 세계를 설명도, 상상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아리요시는 옛 시구에 빗대어 치매 환자를 ‘황홀한 사람’이라 불렀고, 아마

26 佐江衆一, 『老熟家族』, 171~172쪽.

27 佐江衆一, 『老熟家族』, 172쪽.

노는 『황홀한 사람』이 치매 노인 환자의 “‘황홀’을 ‘인격의 결손’(缺損)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간호자의 관점에서 묘사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²⁸ 『노숙가족』 역시 다쓰가 보는 세계에 관한 상상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과거 건강했던 시절에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어머니의 말은, 치매에 걸린 후 아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어머니의 속삭임이 명징한 의식에서 비롯된 의사표현임을 증거할 수 없다. 그들 가족은 치매에 걸린 다쓰의 내면을 직시하지 못한 채 텅 빈 “인격의 결손” 위에 과거 어머니의 기억을, 그리고 자신들의 늙고 병든 비참한 미래를 덧칠한다. 그리고 가족이기에 더더욱 냉정할 수도 객관적일 수도 없는 그들은 결국 다쓰를, 그들 자신의 늙고 추레한 미래를 살해한다.

이 살인은 손자 다카오(鷹男)가 “우리집 사람들은 모두 노인같다고 생각해요.”²⁹라고 냉정하게 지적했듯이, 그들이 질병과 노화를 받아들이지도, 죽음을 직면하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지도 못하는 정신적인 ‘노인’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노숙한 가족’은 가족으로서 다쓰가 죽여 달라는 말이 진심이라고 인식하고, 실행하고, 나아가 허위로 범죄를 자백한다. 경찰은 일본 사회 또한 이 가족의 살인을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처리할 것임을 알려 준다. 이것이 바로 『노숙가족』이 그리고 있는 ‘안락사’의 풍경인 것이다.

6. 나가며

198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안락사 논의는 주로 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1950년 첫 ‘안락사’ 사건의 판결 이후 1962년 가족 간에 일어난 나고야 안락사사건과 1995년 담당의가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염화칼륨을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도카이(東海)대학 안

28 天野正子, 『老いへのまなざし: 日本近代は何を見失ったか』, 109~110쪽.

29 佐江衆一, 『老熟家族』, 193쪽.

락사사건, 2006년 외과부장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7명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미즈(射水)시민병원사건 등이다. 그러나 주로 의료현장과 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명치료의 거부 및 중지로서의 존엄사 논의와는 별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노숙가족』이 그리고 있는 것과 같은 ‘안락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싱>(おしん)과 <세상살이 원수천지>(渡る世間は鬼ばかり)로 유명한 각본가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는 2016년 『문예춘추』 12월호에 「나는 안락사로 떠나고 싶다」(私は安楽死で逝きたい)라는 에세이를 실었다. 당시 하시다의 나이는 92세로, 치매에 걸려 자리보전하기보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이 에세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2017년에는 『안락사로 죽게 해 주세요』(安楽死で死なせて下さい)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러한 대중의 적극적 안락사 지향의 흐름은 분명 2010년대의 ‘종활’(終活,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이 바라는 ‘온전히 개인의 의사에 따른 죽음’으로서의 적극적 안락사가 인정받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인다. 『노숙가족』이 묘사하고 있듯이, 치매 환자의 안락사는 개인의 인지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죽음을 바라는 의사표현 자체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도 야스노리(安藤泰至)는 치매처럼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나라면 그런 상태로 사는(살려지는) 건 견딜 수 없다’는 식의 말은 “현재의 건강한 ‘나’의 의식을 투영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 그런 상태에 처한 당사자의 의식과는 별개”라고 지적한다.³⁰ 실제로 『노숙가족』은 의도적으로 다쓰의 내면 세계를 공백으로 남겨 둔다. 이를 통해 다른 가족들은 자신들의 ‘늬움’을 향한 혐오와 살의를 다쓰의 ‘소원’으로 읽어 내고, 살인을 실행하고, 은폐한다. 그리고 일본 사회는 이 가족의 ‘비극’을 기꺼이 용서하고, 사회의 비슷한 경우에 처한 다른 구성원들에게 역시 같은 메시지를 발신한다. 때문에 이 소설은 ‘개호살인’에서 ‘안락사’ 문제로 “미끄러져” 버린 것이다.

30 安藤泰至, 『安楽死・尊厳死を語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こと』, 58쪽.

그러나 1980년대의 일본 독자들에게 『노숙가족』이 이야기하는 안락사, 특히 존속살인이라는 형태는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사에 슈이치는 10년 뒤 『황락』에서 보다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개호소 설을 썼다. 『황락』은 노노개호(老老介護)의 고단함을 배경으로 개호로 인한 가족의 섬세한 심리 변화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모자식 간의 애정, 그리고 궁극적인 모정(母情)의 형태로서의 안락사를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고령의 치매 환자인 『황락』의 어머니는 완전히 인지 능력을 상실한 치매 환자를 ‘연기’하면서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가족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안락사를 완결시킨다. 말하자면 『황락』은 『노숙가족』의 소재를 바꿔 같은 주제를 ‘다시 쓰기’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황락』이 베스트셀러로서 큰 성공을 거둔 사회적 배경이 바로 ‘핑핑코로리’를 이상으로 하는, 노년과 노화를 혐오하는 장수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스위스를 비롯하여 안락사를 용인하는 국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벨기에와 캐나다에서는 안락사의 요건에 말기질 환만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도 존엄사 법제화의 흐름은 가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22년 6월에 일본에서 말하는 ‘의사방조자살’에 해당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말기질환 환자가 치사량의 약품을 복용해 자살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노숙가족』이 묘사한 일본 사회에 가까워 보인다. 개호 부담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재판을 통해 개호살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미디어는 연일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회는 ‘노숙가족’으로 가득 찬 ‘노숙사회’라 불러야 할 법한 것이 아닐까. 삶과 죽음은 개인과 가족, 사회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이다. 안락사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자살 혹은 타살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22. 11. 18. | 심사완료일자: 2022. 12. 5. | 게재확정일자: 2022. 12. 23.

- 松橋達矢, 「多様化する都市地域社会における『つながり(地縁)』の現在」, 『社会学論叢』173号, 2012.
- 松宮朝, 「高齢者の『関係性の貧困』と『孤独死』・『孤立死』: 愛知県愛西市の事例から」, 『日本都市社会学学会年報』30号, 2012.
- 宮本恭子, 「介護保険制度施行15年の総括: 介護保険制度改正の方向性と課題」, 『社会文化論集』12号, 2016.
- 峯本佳世子, 「被災地における高齢者の孤独死防止と生活支援」, 『大阪人間科学大学紀要』9号, 2010.

[신문기사]

- 「『囲まれた空間』の孤独な死」, 『朝日新聞』1972. 1. 5.
- 「また孤独な『都会の死』」, 『朝日新聞』1972. 1. 6.
- 「孤独な死者」, 『朝日新聞』1973. 2. 7.
- 「東京一人暮らし: 無残な死の周辺」, 『朝日新聞』1977. 2. 7.
- 「孤独死 福祉に距離を感じ消えゆく命」, 『朝日新聞』1996. 12. 28.
- 「座談会『被災者に必要な支援とは』阪神大震災2年特集」, 『朝日新聞』1997. 1. 16.
- 「被災者の孤独死にみる政治の貧困さ」, 『朝日新聞』1997. 1. 23.
- 「阪神大震災の孤独死」, 『朝日新聞』1998. 4. 7.
- 「阪神大震災の仮設住宅孤独死233人」, 『朝日新聞』2000. 1. 14.
- 「(声)男性の孤独死, 暗澹たる思い」, 『朝日新聞』2006. 8. 5.
- 「(声)誰もが『孤独』, 心はさまざま」, 『朝日新聞』2007. 1. 26.
- 「(声)弟が『孤独死』, 悲しく悔しい」, 『朝日新聞』2012. 4. 6.
- 「(声)『孤独死』とは呼ばないで」, 『朝日新聞』2013. 1. 11.
- 「(声)『孤独死』を改め『自立死』に」, 『朝日新聞』2013. 2. 3.
- 「(声)独居は必ずしも孤独でない」, 『朝日新聞』2013. 4. 10.
- 「九州と沖縄対象に生活保護相談会きょう県内は大分市で」, 『朝日新聞』2015. 5. 25.

일본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풍경 | 안지나

- 天野正子, 『おいへのまなざし: 日本近代は何を見失ったか』, 平凡社, 2006.
- 安藤泰至, 『安楽死・尊厳死を語る前に知っておきたいこと』, 岩波書店, 2019.
- 有吉佐和子, 『恍惚の人』, 新潮社, 1972.
- 沖永隆子, 「『安楽死』問題にみられる日本人の死生観: 自己決定権をめぐる一考察」, 『帝京大学短期大学紀要』24, 2004.
- 香川智晶, 『命は誰のものか 増補改訂版』, ディスカヴァー・トゥエンティワン, 2021.
- 木脇奈智子・新井康友, 「日本における家族パラダイムの変容と高齢者の孤立」, 『藤女子大学人間生活学部紀要』52, 2015.
- 久坂部羊, 『人はどう死ぬのか』, 講談社, 2012.
- 齋藤美喜・齋藤勝, 「『高瀬舟』の現代的な解釈(1): 文学・法学・看護の視点から安楽死の検討」, 『共立女子短期大学看護学科紀要』6, 2011.
- 櫻井義秀, 『「カルト」を問い直す: 信教の自由というリスク』, 中央新書ラクレ, 2006.

- 佐江衆一, 『老熟家族』, 新潮社, 1996.
- 佐江衆一, 『古い方の探求』, 新潮社, 1996.
- 寿台順誠, 「諦め」としての安楽死: 森嶋外の安楽死観, 『生命倫理』 26, 2016.
- 関口正和, 「文学に現れた安楽死」, 『流通経済論集』 9, 1975.
- 厚生労働省, 『厚生白書(昭和53年版)』, 1978.
- 小松美彦, 今野哲男, 『「自己決定権」という罌: ナチスから新型コロナ感染症まで 増補決定版』, 現代書館, 2020.
- 田中武士, 「介護殺人の社会的性格と社会的背景」, 『仏教大学大学院紀要社会福祉学科篇』 50, 2022.
- 橋田壽賀子, 『安楽死で死なせて下さい』, 文芸春秋, 2017.
- 崔正美, 「佐江衆一の描く「介護殺人」小説: 『老熟家族』について」, 米村みゆき・佐々木亜紀子 編, 『〈介護小説〉の風景: 高齢化社会と文学 増補版』, 森話社, 2015.

초고령사회 일본의 방치부동산 발생 원인과 과제: 소유자불명 토지와 빈집 문제를 중심으로 | 이호상

- 김수현, 「일본에 빈집이 많은 이유와 시사점」, 『주택연구』 제29권 제1호, 2021.
- 이호상, 「지방 중소도시의 유료주차장 확산과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가가와현(香川県) 다카마쓰시(高松市)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9.
- 한수경·이희연, 「유휴·방치부동산의 공간분포 및 특성 분석: 익산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6.
- 秋山靖浩 編, 『新しい土地法: 人口減少・高齢化社会の土地法を描く』, 日本評論社, 2022.
- 五十嵐敬喜, 『土地は誰のものか: 人口減少時代の所有と利用』, 岩波新書, 2022.
- 佐藤栄治, 「空き家問題と地域の課題」, 『木材保存』 第45巻 第3号, 2019.
- 佐藤和宏, 「空き家と家主はどのように変わったのか: 「空き家実態調査」を対象として」, 『相關社会科学』 第27号, 2017.
- 丹上 健, 「所有者不明土地問題等の原因・背景と対策の方向(総論)」, 『Urban Study』 第67号, 2018.
- 中井検裕, 「空き家問題と不動産学」, 『日本不動産学会誌』 第26巻 第1号, 2012.
- 發地喜久治, 「都市化地帯における農地制度に関する研究」, 酪農学園大学審査博士論文, 2008.
- 吉原祥子, 『人口減少時代の土地問題: 「所有者不明化」と相続, 空き家, 制度のゆくえ』, 中公新書, 2017.
- 山崎福寿・中川雅之, 『経済学で考える・人口減少時代の住宅土地問題』, 東洋経済新報社, 2020.
- 山野目章夫, 『ストーリーに学ぶ所有者不明土地の論点』, 商事法務, 2018.
- 渕圭吾, 「所有者不明土地・手続保障・固定資産税」, 秋山靖浩 編, 『新しい土地法: 人口減少・高齢化社会の土地法を描く』, 日本評論社, 2022.
- 平良小百合, 「土地所有権と憲法: 土地基本法の制定・改正論議から考える」, 秋山靖浩 編, 『新しい土地法: 人口減少・高齢化社会の土地法を描く』, 日本評論社, 2022.
- Mallach, A., *Bringing Buildings Back: From Abandoned Properties to Community Assets*, Montclair, NJ.: National Housing Institute, 2010.
- 国税庁, 「相続税の税率」,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55.htm> (최종검

특집 | 초고령화 일본, 다층적 삶의 정경

일본의 고독사 담론: 커뮤니티 담론의 전개와 일본 고령자복지의 방향성 | 오독립

고독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는 현상이다. 더불어, '죽음' 그 자체뿐 아니라 죽음을 전후로 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독사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현상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이 사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지극히 '담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고독사 현상이 이야기되는 데 있어서 관찰되는 담론의 전개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양상은 크게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3가지 유형의 담론 형태를 띠며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의 극단적 사례로서 고독사를 다루는 담론 구조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추진된 고독사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담론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서 지바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를 분석한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담론이 정책과 연결될 때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커뮤니티 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고독사, 일본, 커뮤니티 담론, 일본 고독사 정책, 도키와다이라

일본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풍경 | 안지나

이 글은 현대 일본의 노년문학이 그리는 죽음의 표상을 사에 슈이치(佐江衆一)의 『노숙가족』(老熟家族, 1985)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형 복지정책은 가족에 의한 노인개호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으나 급속도로 진행된 핵가족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가족에게 정신적·경제적 개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개호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노숙가족』은 개호살인과 안락사를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본 노년문학에서 특히 독특한 작품이다.

『노숙가족』은 요코하마의 뉴타운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남매가 동거하는 화목한 삼세대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개호살인 사건의 보도로 시작한다. 경찰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의 표정을 보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뢰로 이루어진 촉탁살인을 의심한다.

이 가족이 안락사를 의식하게 되는 계기는 신의 이름으로 안락사를 장려하는 W·W·C(Welcome Wagon Company)라는 신종교다. 노부부는 안락사를 인정해 주는 종교라는 점에 이끌려 신종교에 가입하고, 아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노부모가 안락사를 해주기를 바란 나머지 가입을 묵인한다. 그러나 결국 안락사는 가족에 의한 개호살인의 형태로 실현된다.

일본의 안락사 논의는 주로 법과 의료의 영역에서 연명치료의 거부 및 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숙가족』의 안락사는 치매 환자의 적극적 안락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치매 환자의 경우 안락사의 중요 요건인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명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숙가족』에서 안락사는 다른 가족들이 치매 환자의 부탁을 구실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경멸과 두려움을 투사함으로써 살인에 이른다. 『노숙가족』이 묘사하는 이와 같은 안락사의 표상은 1980년대의 일본사회보다도 현재 한일 양국의 대중에게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안락사, 개호살인, 노년문학, 사에 슈이치, 치매

초고령사회 일본의 방치부동산 발생 원인과 과제: 소유자불명 토지와 빈집 문제를 중심으로 | 이호상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치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치부동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빈집과 소유자불명 토지를 사례로 부동산 관련 법제도가 고령사회의 토지이용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빈집이나 소유자불명 토지 등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 저출산 등 '어쩔 수 없는' 사회의 구조적 변동이나 '국민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의 토지정책, 주택정책, 세제정책, 농지정책 등 부동산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상속미등기, 사망자과세, 절세를 위한 농지전용 및 상속대책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성장 및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실되는 등 일본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방치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일본 정부는 빈집대책법, 소유자불명토지법, 토지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등 다양한 토지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나 법리적 한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방치부동산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라기보다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만을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개발 시대에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기존의 각종 규제와 세제를 사회변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방치부동산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지방장생이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방치부동산, 빈집, 소유자불명 토지, 상속미등기, 상속대책, 고령화

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 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 김성조

본 연구는 일본 고령자 복지국가의 편향성과 관련하여 연령별로 복지 영역의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소위 '실버 민주주의론'(Silver Democracy)의 논리적이고 미시적 논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세대 간 복지 균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복지혜택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은퇴세대 대 근로세대의 정치적 대결을 초래

MULTI-LAYERED LIFE-SCAPE IN SUPER-AGING JAPAN

Discourse on the “Kodokushi” in Japa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Discourse and the Direc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Japan | OH Dok-lip

“Kodokushi,” or solitary death, is a phenomenon that does not yet have a clear definition based on objective criteria. In addition, it is a complex phenomenon related not only to “death” itself but also various aspects surrounding before and after of death.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leading to recognizing and coping with kodokushi as a “social problem” involves an examination of how the situation is “told” in society. With this regard, kodokushi can be analyzed as a “discursive” phenomen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discourse over kodokushi in Japan. In Japan, the discourse has developed in three ways: welfare/institutional discourse, personalization discourse, and community discourse.

What occupies the most central position is the discourse that views kodokushi as an extreme example of social loneliness and isolation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community and disconnection of human rel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mmunity discourse has maintained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of kodokushi discourse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ommunity discourse on related policies promoted by Japan’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2007, and analyzes the case of Tokiwadaira housing complex in Chiba Prefecture that played a key role in this process. Analysis of the Tokiwadaira case and the like reveal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issues that may arise as community discourse is linked to policy.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reconsideration of the community-oriented direction on which current Japanese welfare policies strongly depend.

· **Keywords:** kodokushi, Japan, community discourse, Japanese kodokushi policy, Tokiwadaira

Scenes of Death Depicted in Japanese Elderly Literature | AHN J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representation of death in Japanese elderly literature through Shuichi Sae’s novel *The Elderly Family* (1985). In Japanese welfare, the basic policy for the care of the elderly was “home care” by family members. The rapid progress of the nuclear family and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have placed a psychological and economic burden

on the family. The result of this trend has manifested itself in the form of homecare murder of the elderly. *The Elderly Family* is a unique novel in Japanese elderly literature in that its theme is the euthanasia and the homecare murder of the elderly.

The novel begins with media reports of a sensational homecare murder of the elderly that occurred in a three-generation family in Yokohama. The police suspect a commissioned murder based on the dead face of the victim, who appears to be asleep. The family was triggered by a new religion called W.W.C. (Welcome Wagon Company), which allows euthanasia in the name of God. The elderly couple is attracted by the fact that it allows euthanasia and joins, while the son and his wife approve of their membership, hoping that their parents will be euthanized. In the end, euthanasia is carried out in the form of murder by family members.

In Japan, discussions about euthanasia have focused on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Elderly Family* deals with the active euthanasia of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dementia. Because patients with dementia are not believed in their will for euthanasia. In *The Elderly Family*, family members take advantage of the dementia patient's wish to die to project hatred and fear toward their own future.

The representation of euthanasia in *The Elderly Family* seems to have come closer to the concept of euthanasia in both Japan and Korea today than the Japanese society of the 1980s.

• **Keywords:** euthanasia, homecare murder of the elderly, elderly literature, Shuichi Sae, dementia

The Causes and Tasks of Abandoned Properties in the Super-Aged Society of Japan: Focusing on Land Plots with Unknown Owners and Vacant House Problems | LEE Ho Sang

This paper examined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abandoned property problem in the super-aged society of Japan, and reviewed the Japanese government's reorganization of the abandoned property-related legal systems and related issues. To that end, this paper examined how real estate-related legal systems affected changes in land use in the aged society with the cases of vacant houses and land plots with unknown ownership. Direct causes of the increase in vacant houses or owner unknown lands are not 'unavoidable' structural changes in the society such as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 rates or 'people's responsibility,' but are inadequate real estate-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land policies, housing policies, tax policies, and farmland policies in Japan. Consequently, problems such as unregistered inheritance, taxation on the dead, farmland conversion for tax savings, and inheritance measures occurred, and as Japan entered an era of low growth and population decrease, Japan's special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loss of real estate asset values in provinces acted complexly leading to increases in abandoned properties. In order to respond to such abandoned property problem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cently enacted and revised various land-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Vacant House Countermeasures Act, Unknown Land